

KOCHAM

Economic Briefing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USA, Inc

2015년 7월 9일(목)

【 미국 경제 동향 】

- 1) 미국-일본 TPP 타결 임박
- 2) 미국·IMF, 그리스 채무 탕감 주장

【 해외 경제 동향 】

- 1) 미국, 중국 증시 폭락 사태 예의주시
- 2) 중국의 '실크로드' 연결 국가들 투자액 1600억 달러 돌파

【 산업·시장 동향 】

- 1) MS, 휴대폰 사업 구조조정 7800명 감원
- 2) 애플, 신형 아이폰 최대 9천만대 생산 의뢰

【 미국 경제 동향 】

1) 미국-일본 TPP 타결 임박

- o 지난 9일 양국은 이틀간 도쿄에서 TPP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돌입
 - TPP의 핵심 국가인 미·일이 먼저 절충점을 찾고, 이를 토대로 오는 28일 12개 협상 참가국이 모이는 전체 각료회의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계산
- o 이날 미·일 양자회담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대행 웬디 커틀러와 일본 TPP 정부대책본부의 오에 히로시 수석 협상관 대리가 협상을 진행하였고 양측은 쌀, 자동차 부품 등 가장 민감한 쟁점에 대해 마지막 절충점을 찾고 있는 상황
 - 미국은 자국산 주식용 쌀의 무관세 수입 물량을 연간 17만5000t 증가 요구, 일본은 자국 농민들의 반대를 의식해 무관세 수입물량을 연 5만t 선에서 최대한 감축하는 것을 요구
 - 일본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자국산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는 수입관세 2.5%의 즉시 철폐를 미국 측에 요구, 그러나 미국은 자국 자동차시장 보호를 위해 장기간 단계적 철폐를 주장
 - 쇠고기와 돼지고기, 유제품 등 쌀 이외의 중요한 농산품에 대해 일본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긴급수입제한(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 등에 대해 양국은 막바지 조정에 있는 상황

- 한편, 미국은 연내 TPP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지난달 미국 의회는 오바마 정부에 TPP 협상 권한을 위임하는 관련 법안 무역협상촉진권한(TPA)과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법안을 통과

2) 미국 · IMF, 그리스 채무 탕감 주장

- 지난 8일 미국과 IMF는 그리스 편에 서서 Grexit(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를 막기 위해서는 유로존 채권단이 그리스에 진 채무를 탕감해줘야 한다고 주장
- IMF 총재는 그리스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으며 그리스의 경제 개혁과 함께 부채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
- 같은 자리에서 미 재무장관도 그리스 부채 축소를 촉구, 그리스는 새 개혁안을 수행할 것이란 믿음을 나머지 유로존 국가들에게 심어주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이전까지 그리스와 채권단의 협상 규모는 수백억달러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수천억달러 수준에 이르는 경제적 리스크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럽이나 글로벌 경제가 깊어질 필요가 없는 리스크라 지적
- 그리스가 갚아야 할 부채규모는 약 3천1백7십억유로로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들은 그리스 부채 탕감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그리스가 새 개혁안을 내놓으면 우선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이 먼저 검토에 나서며 이후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 회의를 통해 구제금융 협상 개시여부를 판단 후 12일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도출될 전망

【 해외 경제 동향 】

1) 미국, 중국 증시 폭락 사태 예의주시

- 지난 8일 미국 주요 언론들은 미 경제고위관리들의 말을 인용, 미국이 중국 증시 급락이 미칠 잠재적 영향 분석에 들어갔다고 보도
- LA타임스는 그리스 사태 등 유로존 이슈에서 떨어져 있는 중국 주식시장이 최근 악화일로인 것에 주목한다고 강조
 - 중국 증시 폭락으로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진 데다 중국 당국의 관리능력도 의심받고 있다는 것
- 또한,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으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에 대한 우려가 한국,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넘어가기 시작했다고 지적
- 중국의 주가 폭락 사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경제가 얼마나 신속히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는 분석도 나옴
- 최악의 시나리오는 최근 중국 중앙은행의 주가부양책에도 기대만큼의 반응이 없는 상황이 올가을까지 지속되는 것이며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실패는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

2) 중국의 ‘실크로드’ 연결 국가들 투자액 1600억 달러 돌파

- 지난 7일 중국 상무부는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연선’ (沿線) 국가의 올해 5월 경제 무역 협력에 관한 최신 정보를 발표
 -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기업은 일대일로 연선의 48개국에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48억 6000만 달러를 직접 투자, 주요 투자국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라오스, 러시아 등으로 조사
 - 또 중국은 지난 5월 말까지 일대일로 연선의 64개국에 1612억 달러 투자, 이는 중국의 대외 직접 투자 총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수치
- 한편, 2015년 5월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의 무역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한 3983억 8000만 달러로 같은 시기 중국의 수출입 총액의 25.8% 차지
 - 그 중 중국의 對일대일로 연선 국가 수출액은 2% 증가한 2439억 5000만 달러로 중국 수출 총액의 27.7%를 차지, 對일대일로 연선 국가 수입액은 23.2% 감소한 1544억 3000만 달러로 중국의 수입 총액의 23.3%를 차지

【 산업·시장 동향 】

1) MS, 휴대폰 사업 구조조정 7800명 감원

- 지난 8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휴대폰 부문 구조조정 일환으로 76억달러 감가상각하고 인원 7800명을 감원했다고 발표

- FT는 MS가 스마트폰업계 선두가 되려는 시도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MS CEO 사티야 나델라가 전임자인 스티브 발머가 2013년 논란 속에 노키아의 스마트폰 부문을 인수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풀이
- o 나델라 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휴대폰 사업과 관련해 법인고객과 주력 제품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
 - 이는 블랙베리가 강점을 보였던 분야로 켄 델라니 가트너 애널리스트는 MS는 노키아 대신 블랙베리를 인수해야했다고 지적
- o 한편, 노키아는 한때 세계 휴대폰시장을 장악했지만 MS가 인수할 때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반격으로 휴대폰 부문 점유율이 한 자릿수로 하락

2) 애플, 신형 아이폰 최대 9천만대 생산 의뢰

- o 지난 8일 WSJ은 애플이 하청업체에 오는 12월 31일까지 8천5백만-9천만대의 신형 아이폰 생산을 의뢰했다고 보도
 - 이는 애플이 지난해 처음으로 화면 크기를 키운 아이폰6 시리즈 초기물량을 7천만-8천만대 주문했던 데 비하면 최대 30% 가까이 늘어난 것
- o 애플은 스마트폰업계의 대화면 경쟁에 뒤늦게 참여했지만 아이폰6 시리즈는 기록적인 판매량을 기록 중이며 지난해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43% 늘어난 양을 판매
- o 한편, 애플이 연내 발표할 신형 아이폰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으로 관계자들에 따르면 화면에 손을 대는 강도의 차이를 인식하는 감압터치 기술이 채택될 전망